

10월의 안테나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움츠려야 산다

사람에게는 많은 욕망이 있다고 한다. 식욕, 명예욕, 권세욕, 성욕, 생존에 대한 욕망 등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욕을 비롯하여 많은 욕망들이 강한 것 같지만 식욕을 앞서지 못한다. 3일만 굶어보면 이들 다른 욕망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

식욕은 생존에 대한 욕망으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욕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안정을 갖기를 원하는 욕망이라고 한다. 살려고 노력하다 안되면 마지막에는 안정을 찾기 위하여 자살도 불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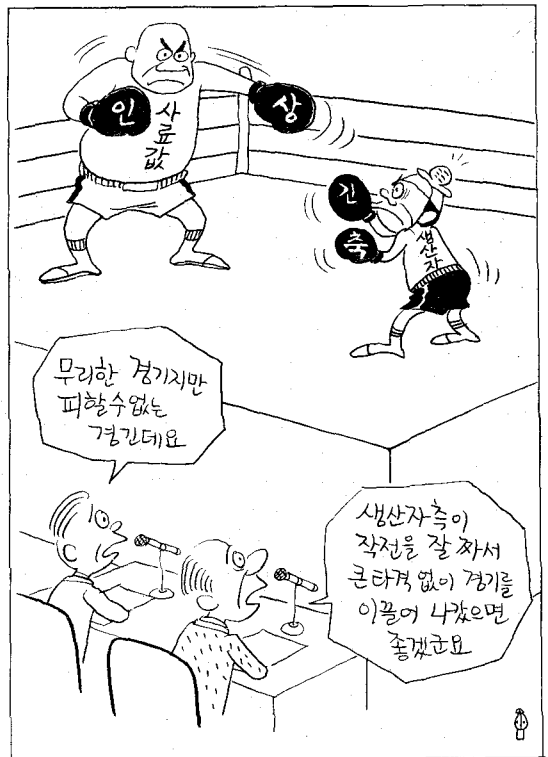
우리의 하루생활중 잠자는 시간이 가장 편히 쉬는 시간으로 수면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이 가장 안정을 누리는 시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활하는 280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임금이 사는 궁궐에 비유해서 子宮(자궁)이라고 한다. 먹고 배설하는 불편도 없으며 냉난방시설이 잘되어 항상 36.5°C를 유지한다. 외부의 충격을 막기 위하여 양수속에서 생활한

다. 그러나 세상에 나올 때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나온다. 충격에 적응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군대에서 매를 맞을 때도 본능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움츠리고 맞는다. 권투선수들도 움츠리고 매를 맞기 때문에 견뎌낸다고 한다.

배합사료값이 내년부터 약 23% 인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제매입공제(부가가치세)가 철폐됨에 따라 약 4%, 옥수수 관세의 2% 인상으로 약 1%, 안정기준가격철폐(옥수수가



격 170\$로 계산)에 따라 9.5%, 대두박가격 인상(320\$ 기준)으로 6.5%, 대두박 관세 5% 인상으로 1%, 소맥부산물(밀기울) 가격의 자율화에 따라 1.3% 등 모두 합하면 23.3%의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과거 74년과 76년 두차례의 옥수수가격 인상에 따른 양계업계의 불황을 연상하게 한다. 우리 스스로 움츠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움츠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다. 규모를 적정수수로 감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과 경영합리화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산업이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동안 양계산업 안정화방법이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이번처럼 국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으므로 우리 스스로 움츠려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또 정책적으로 크게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의제매입제도를 배합사료가격 인상요인이 가장 큰 시기에 철폐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옥수수 및 대두박의 관세인상도 그 시기를 늦추고 오히려 잠정적으로 관세를 0%로 인하하여 물가안정은 물론 물량확보에 주력하는 방법 등이다.

사료곡물안정 기준가격도 그간 적립만 하여 오다 곡물가격이 오르자 철폐함으로써 양축가들이 자칫하면 이 제도에 대한 큰 오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곡물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보아서 한번에 큰 충격이 없도록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묘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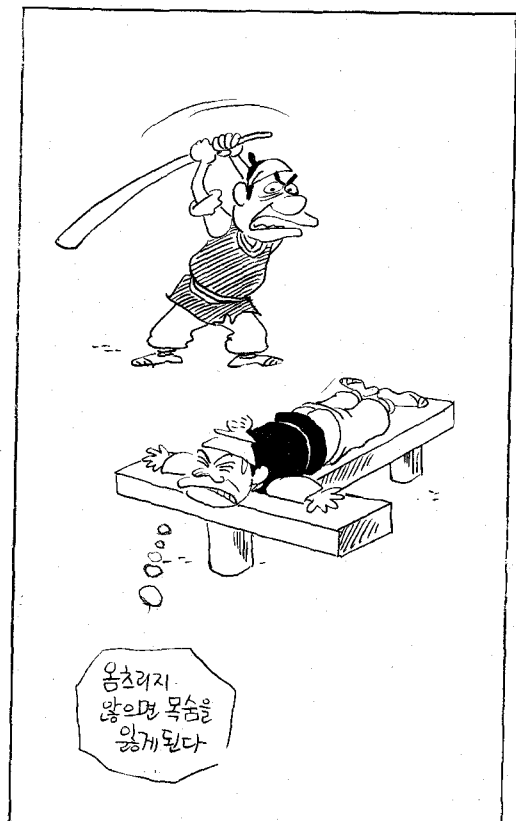
양축가도 정부나 협회가 설마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천만이다. 스스로 움츠리지 않으면 한번의 충격으로도 스스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조대왕이 비명에 돌아간 아버지 사도세자

를 위해서 수원능에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절을 지었다고 한다. 관리인이 정조대왕의 백을 믿고 나쁜 짓을 하며 고을원님이 그를 옥에 가두고 이 사실을 정조대왕에 보고하자, 왕은 곤장 1대만 때리고 석방하라고 봐주었다.

원님은 곤장때리는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눈으로 신호할 때 힘껏 치라고 명하였다. 곤장을 높이들자 곤장맛을 놔온 잔뜩 힘을 주고 움츠렸다. 그러나 원님은 눈으로 신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10여번 하자 그러면 그렇지 임금님이 나를 보아주니 감히 나를 못때리는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었다. 이를 눈치챈 원님의 신호에 힘껏 곤장을 치니 즉사하고 말았다고 한다. 움츠리지 않고 한대 맞았으므로 즉사한 것이다.

매맛을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 현명하다. 움츠리자.



경제 개방화와 양계산업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자도입에 관련된 법규들을 외자도입법으로 단일화하는데, 그 내용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국법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는 등 외자도입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하였다.

이번 재무부가 마련한 외자도입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허용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외자도입방식을 금지 또는 제한업종을 명시하고 이들 업종외에는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하고, 외국인 지분제한을 사실상 철폐하며, 기술도입은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사료업계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으므로써 외국의 기술도입업체들이 해마다 증가되어 왔었고, 동물약품업계도 1개의 외국인투자업체와 대부분의 업체들이 원료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술도입이 이루어져 왔다.

생산분야는 종계도입을 통해서 외국의 생산경영기술이 도입되어 왔으며, 그간 생산분야에 투자하려는 외국의 기업들이 있었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정부는 이번 개방조치와 함께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세제상 특혜는 철폐하며,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교포에게도 국내투자를 허용키로 하였다. 이외에 국교관계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도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국내에 진출한 기업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양계산업은 아직까지는 금지 또는 제한품목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으나, 개방화시대에 맞추어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들이 국내진출을 희망하는 분야가 유통과 소비 등 아직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이며, 이 분야가 업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분야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관심이 더욱 큰 것이다.

배합사료공장들이 대형화함에 따라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분야에도 계열주체를 외국자본이 도입될 경우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의 재편성을 예고하는 이번 정부조치가 양계산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

